

국제금융시장 9월 동향 및 10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심 한 용 (hyshim@kdb.co.kr)

- ◆ (환율) 9월 원/달러 환율은 약달러 환경 지속에도 한·미 무역합의 관련 불확실성으로 상승, 10월은 연준의 연속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대미 수출 부진 지속으로 박스권 등락 전망
- ◆ (금리) 9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, 10월 미국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로 하락할 전망이나, 일본 및 유로존은 상승 전망
- ◆ (주가) 9월 주요국 주가는 美 연방정부 섣다운 우려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, 10월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미국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개시 등이 조정 요인

□ 9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美 연준은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, ECB와 BOJ는 금리 동결

- 美 연준은 FOMC(17~18일)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 (4.25~4.50% → 4.00~4.25%)
 - 노동시장*의 하방 위험 현실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'24.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, 성장률 전망치**는 상향 조정, 실업률과 물가 전망치**는 유지

* 美 비농업고용 전월차(만명) : 17.7 ('25.4월) → 13.9(5월) → 14.7 (6월) → 7.3 (7월) → 2.2 (8월)

** '25년 美 성장률/근원물가상승률/실업률 전망치('25.6월 → 9월, %) : 1.4/3.0/4.5 → 1.6/3.0/4.5

- 파월 의장은 상품 부문에서 관세가 물가*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, 현 시점에서 큰 폭의 금리인하를 실시할 필요성은 낮다는 견해를 제시

*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2.3('25.4월) → 2.4(5월) → 2.7(6월) → 2.7(7월) → 2.9(8월)

- BOJ는 금융정책회의(18~19일)에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(단기금리 0.50%)
 -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, 美 관세정책이 일본 기업과 경제,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 동결
 - '24.3월 '양적·질적완화' 정책을 종료하며 매입 조치를 중단한 기타자산의 매각* 개시 결정, 우에다 총재는 경제·물가 전망 현실화시 금리인상 실시를 시사

* BOJ 보유 기타자산 年 매각 규모/총 보유액 : (ETF) 3,300억엔/37조엔 (J-REITS) 50억엔/6,500억엔

-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(11일)에서 2회 연속 정책금리 동결 (수신금리 2.00%)
 - 물가상승률* 안정과 역내 실물경기 회복세로 만장일치 금리 동결, 대미 무역합의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**를 상향

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 , yoy) : 2.2('25.3월) → 2.2(4월) → 1.9(5월) → 2.0(6월) → 2.0(7월) → 2.0(8월)

** '25년 ECB 경제성장률 전망치('25.6월 → 9월, %) : 0.9 → 1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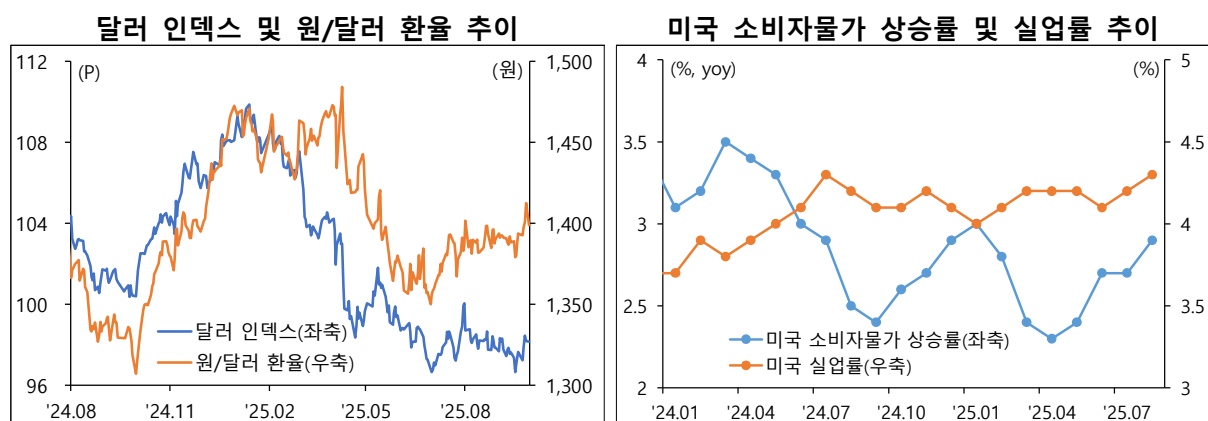
- 라가르드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끝났다고 언급하며 금리동결 지속을 시사하였으나, 향후 물가 전망은 美 관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

□ '25.10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FOMC(28~29일) : 연준은 9월 점도표*를 통하여 '25년중 2회, '26년 추가 1회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, 금융시장도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기대**
 - * FOMC 점도표상 기준금리 상단 전망 중간값(% '25년말/'26년말) : 4.00/3.75('25.6월) → 3.75/3.50(9월)
 - *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10월 FOMC 25bp 인하 확률은 89.8%('25.9.30일)
- 한국, 금통위(23일) : 물가상승률* 안정세에도 불구하고, 8월 금통위 의사록(16일)에서 드러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세** 반등 관측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경계 속에 기준금리 동결 전망
 - *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2.1('25.3월) → 2.1(4월) → 1.9(5월) → 2.2(6월) → 2.1(7월) → 1.7(8월)
 - ** 가계부채 증가액(조원, 전월비) : 4.2('25.2월) → 0.7(3월) → 5.3(4월) → 5.9(5월) → 6.5(6월) → 2.3(7월) → 4.7(8월)
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- (환율) 9월 원/달러 환율은 약달러 환경에도 한·미 무역협정의 불확실성으로 상승, 10월은 연준의 연속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對美 수출 부진으로 박스권 등락 전망
 - 9월 원/달러 환율은 연준 금리인하에 따른 약달러 지속에도 한·미 무역협정 후속 합의의 불확실성 등으로 월중 일시 1,400원을 상회*하며 상승
 - * 원/달러 환율은 '25.9.26일자 종가 기준 1,412.4원을 기록
 - 10월 원/달러 환율은 연준의 연속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하방 요인이거나, 對美 수출* 부진 지속과 3,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포함한 무역협정 후속 합의의 불확실성 등으로 1,400원 수준에서 등락 전망
 - * 전체/對美수출 증가율(% , yoy) : △1.3/△4.4('25.5월) → 4.4/△3.8(6월) → 5.7/△3.1(7월) → 1.2/△4.1(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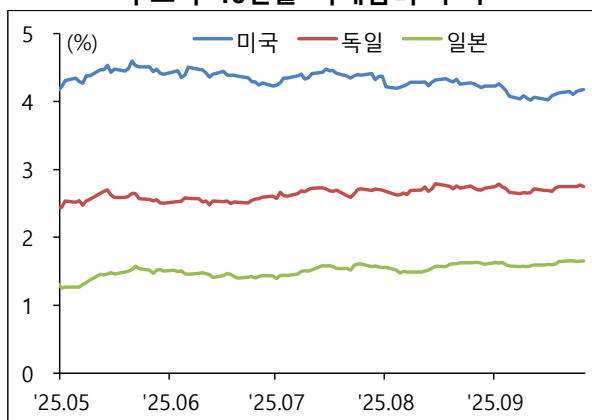


	'23년말	'24년말	'25.8월말	'25.9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294.5	1,472.5	1,390.1	1,398.7	+0.6%
달러 인덱스	101.47	108.09	97.86	98.15	+0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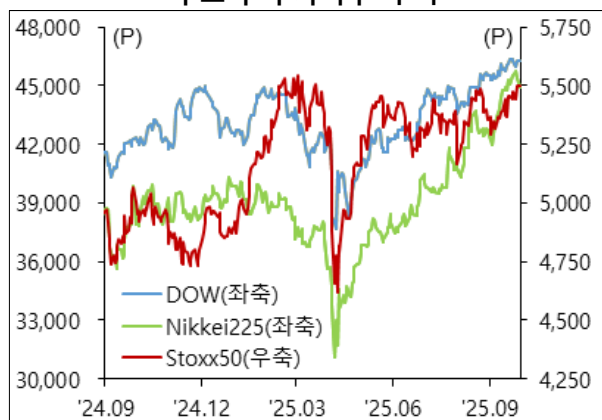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9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, 10월 미국 금리는 하락할 전망이다, 일본 및 유로존은 상승 전망
 - 9월 미국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락, 유로존 금리는 프랑스 재정위기* 우려 등의 상방 요인에도 독일 경제 역성장('25.2Q $\Delta 0.2\%$) 등으로 보험세, 일본은 이시바 총리의 사임 표명(7일) 등 정치적 불안 요인 등으로 상승
 - *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'24년말 GDP의 113% 수준인 국가부채, 과도한 재정적자, 예산안 삭감 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 등으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-에서 A+로 강등(12일)
 - 10월 미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, 유로존은 ECB 기준금리 동결 예상과 역내 국가 재정위기 우려 지속으로 상승 예상, 일본은 BOJ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
- (주가) 9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 등으로 상승, 10월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미국의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개시 등이 조정 요인
 - 9월 주요국 주가는 美 연방정부의 섀다운 우려*에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, 美·中 정상회담 합의(19일)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
 - * '26년 예산안 및 임시예산안 관련 공화당-민주당 간 이견으로 연방정부 운영 중단 가능성 대두
 - 10월 주요국 주가는 美 금리인하 기대 아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, 트럼프의 추가 품목별 관세* 부과, 유로존 재정 불안 등이 조정 요인
 - * 의약품(50%), 대형트럭(25%), 주방 캐비닛·욕실 세면대(50%) 등에 10.1일부터 관세 부과 발표(25일)

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

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

	'23년말	'24년말	'25.8월말	'25.9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3.897	4.533	4.228	4.154	$\Delta 1.8\%$
독일채 10y	1.979	2.367	2.724	2.712	+0.3%
일본채 10y	0.623	1.101	1.602	1.652	+3.1%
다우존스	37,385.97	42,573.73	45,544.88	46,247.29	+1.5%
유로 Stoxx 50	4,521.47	4,869.28	5,351.73	5,499.70	+2.8%
Nikkei 225	33,169.05	39,894.54	42,718.47	44,932.28	+5.2%

자료 : Bloomberg